

牙山 外岩마을의 住居變化에 관한 研究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지정 이후 2001년까지-

이왕기

(牧園大學校 建築都市工學部 教授)

이강복

(牧園大學校 建築大學院 博士課程)

최흥기

(牧園大學校 建築大學院 碩士課程)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전통민속마을은 한국전통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민속마을¹⁾은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풍부한 소중한 문화재 보고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전통마을은 우리나라 일반농촌문제와 결합하면서 전통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 훼손되어왔고 기존의 문제들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과 중첩되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살림집은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산맥과 하천을 경계로 동서로 나뉘며 기후조건에 따라 함경도와 평안도, 중부와 남부지방이 다르며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이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 중 외암마을은 충청지역 반가(班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마을이란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외암마을²⁾은 1988년 국가지정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1년 현재까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왔고 그동안 마을내에는 관련법³⁾에 의해 지속적인 복원 또는 보수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개선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주거인에 의한 가옥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는 또 다른 변형을 가져와 전통마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었다.

본 연구는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된 당시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2001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여 지난 10여년 간의 주거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외암마을의 10여년간의 변화현황과 주거변화의 요소를 고찰해보고 그 변화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외암마을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충청지역의 대표적 전통민속마을로서 그 역

1) 전통민속마을은 전통적인 마을형태가 많이 남아있는 마을로 그 중 문화재로 지정된 보존마을은 다음과 같다.

- 전남 송주 낙안읍성 민속마을 (사적 제302호 1983.6)
- 안동 하회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1984.1)
- 제주도 성읍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1984.6)
- 경북 월성 양동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9호 1984.12)
- 충남 아산 외암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2001.1)
- 강원도 고성 왕곡마을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2001.1)

2) 외암마을은 충청남도에서 1978년 “민속보존마을”로 지정 후 1982년 3월 “민속관광마을”로 개칭한바 있으며 1988년 8월 국가지정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9년 7월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로 재 지정되어 주변 500m이내의 중·개축 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

3) 1988년부터 문화재보호법과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보존·관리되어 왔으며 현재는 전통건조물법이 없어지고 중요민속자료로 재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다.

사적·건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간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자료 및 현황조사는 1988~1990까지의 상황과 현재의 마을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정리하고 1990년 이후 신축된 3가옥을 포함해서 전체 68가옥을 2001년 8월 시점으로 현장답사를 통해 실측·조사하여 최종 도면으로 정리하였다.⁴⁾

연구방법은 크게 관련자료를 고찰하는 부분과 현장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마을의 특성, 인구, 가옥구성 등의 변화사항을 당사와 비교·검토하고 가옥구성을 안채, 문간채, 사랑채, 부속채로 구별하여 건물별 변화요소를 살펴보았다. 그 중 평면구성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8~1990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당시의 65가옥 중 평면이 있는 48가옥⁵⁾을 대상가옥으로 선정하여 변화요소를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집·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외암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난 10여년의 마을변화사항을 고찰해보고 현재의 주거현황 조사결과와 지정당시의 자료를 비교하여 변화된 요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2. 마을 현황 및 주거유형

2-1 배치 및 특징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경계인 광덕산 밑에 위치하고 있다.

외암마을은 표고 441m인 설화산을 주산으로 하고 있으며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수산과의 사이에 일정한 영역을 형성하고 그 중심으로부터 확산되어 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마을배치는 동서로 긴 장축으로 평면적으로는 타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쪽의 마을어귀는 낮고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서저동고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에 따라 주택의 향은 대부분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남향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마을입구의 다리(川)를 건너면 마을 중심에 형성된 안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좌우로 셋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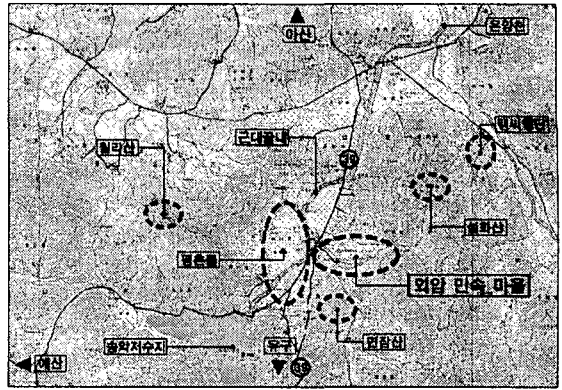


그림 1. 외암마을 위치도

이 있고 그 사이에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다.

외암마을은 조선시대 반촌(班村)의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적 시설물에는 교육적인 시설, 의례·신앙적인 시설, 휴식시설, 생활부대시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교육시설에는 외암서당과 정려각⁶⁾이 있다. 두번째로 의례·신앙적인 시설에는 마을 입구의 장승·숫대, 가묘 등이 있으며 마을의 안녕과 질서, 재앙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주민의 단합, 조화를 위한 시설이다. 세번째 휴식시설에는 마을 입구의 정자와 하천을 따라 오라가면 마지막 다리에 있는 정자 2곳과 정자나무 등이 있다. 이것은 주민의 휴식을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통기나 정보교환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네번째 생활부대시설로는 마을입구에 있는 물레방아와 교수땃 앞의 디덜방아, 그리고 참판땃 앞의 연자방아와 마을 중간의 빨래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하천을 따라 6곳의 다리가 있다.

이 마을의 주요한 특징은 설화산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의 수원이 되어 그 물이 수로를 통하여 거의 모든 가옥들을 연결하고 또한 나무와 주택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원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다른 마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외암마을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된 것은

4) 실측조사는 2001. 3.~8.까지 전체 68가옥을 실측 도면화하고, 사진 및 Video 촬영을 하였으며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5) 1988~1990년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48가옥을 파악하였으며 그 중 분석대상 건물은 안채가 45동, 문간채 16동, 사랑채 5동이다.

6) 교육시설로, 巍巖, 李東선생이 후학들에게 강학하기 위하여 觀善齋를 조영하였는데 마을에서 남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강당골에 자리잡고 있다. 간접적인 교육시설로서 정려각을 마을 입구에 세우고 이로 하여금 역사적 교훈과 정신적 교육의 자료로 삼고 있다. "아산의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보고서", 아산군, 1990, p33. 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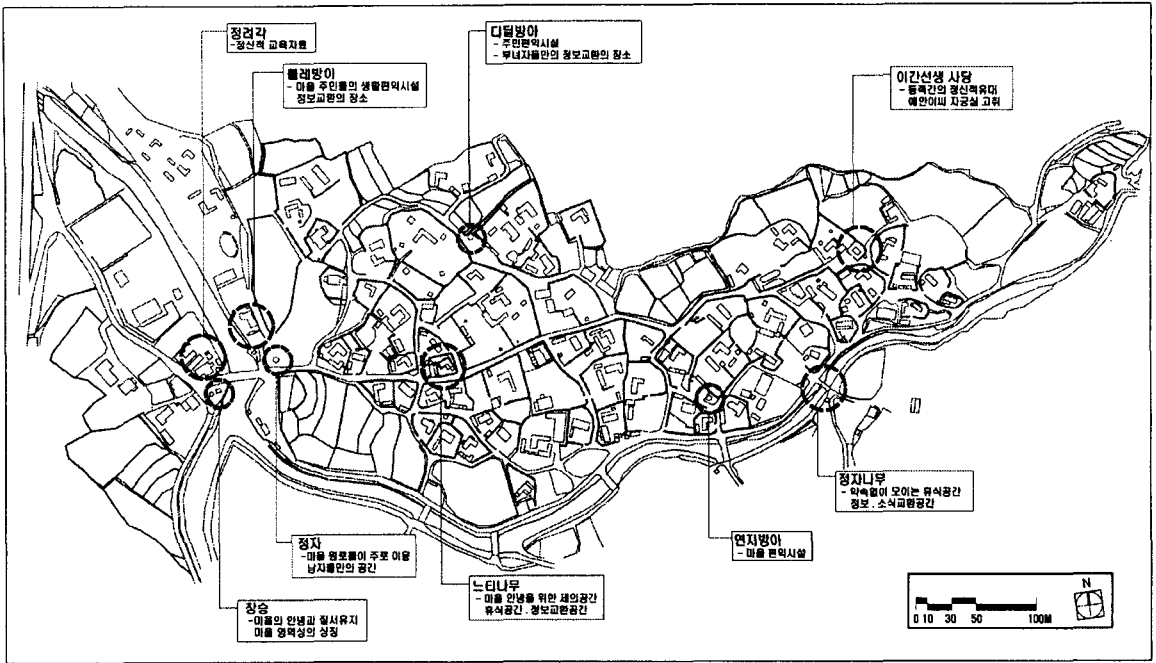


그림 2. 외암마을 배치도

대략 200여년 전으로, 고가(古家)는 대체로 백여년 전의 조선후기에 건립된 건물이다.

2-2 마을의 인구변화

외암1리는 오양골(아랫말과 웃말)과 약 500m 떨어진 설라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양골의 아랫말을 1반, 웃말을 2반, 그리고 설라리가 3반으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현재 보존지구로 지정된

1989년 416명에서 2001년 295명으로 약 30%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다른 여타 농촌마을과 같이 농가의 자녀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표 1. 외암1리 인구변화

*출처: 송악면사무소

년도	가구수	남	여	계
1984년	89	221	216	437
1985년	86	211	192	403
1986년	87	202	204	406
1987년	86	213	192	405
1988년	87	212	187	399
1989년	81	221	195	416
2001년	97	156	139	295

2001년 현재 보존지구 내의 실제 거주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1983년 조사 당시 가구수는 66가옥이고, 남자 162명, 여자 184명을 합하여 총 34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된 후인 1990년에는 65가옥이며, 이 가운데 3호는 공가(空家)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1년 현재는 총 68가옥으로 3가옥이 증가한 가운데, 12가옥이 공가로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남자 103명, 여자 74명을 합하여 총 177명(약 51%)으로 급감하고 있다.

곳은 오양골이다. 보존지구를 포함한 외암1리 전체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즉, 전체 가구수⁷⁾는 다소 증가한 반면, 인구는

또한 외암마을은 위치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고 교통도 편하여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며 영화나 TV 촬영장소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최근 방문객 수는 평일에는 약 400~500명, 토·일요일에는 약 1,000~1,500명 정도이고, 봄과 가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등, 최근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3 가옥구성 및 보수현황

외암마을에는 현재 2가옥⁸⁾이 국가지정문화재

7) 주민등록상의 세대수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68가옥 중 안채가 68동, 사랑채 13동, 문간채 28동, 부속채⁹⁾ 63동, 기타 21동이 있다. 이 중 사랑채 1동과 기타 3동은 교수택에 위치한 임시로 지어진 영화 세트이다.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로 사당, 정자, 방아간, 정려각 등이 있다.

표 2. 외암마을 가옥 구성 변화현황

* () 기타 건물

	안채	사랑채	문간채	부속채	계
1990년	65	11	22	83	181
2001년	68	12(1)	28	63(21)	171(22)

마을 전체 가옥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3가옥¹⁰⁾ 만이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것에 비하여 문간채가 6동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부속채의 수는 변화가 없다. 이것은 1989년부터의 지속적인 복원공사로 필요에 따라 가설물로 만들어진 부속시설을 보수한 부속채로 정비하거나 안채, 문간채 등에서 부속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외암마을은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보수사업이 시행되었다. 현재까지 보수가옥이 지정 당시의 65가옥 중 43가옥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보수되고 있다.

1989년부터 시행되어온 보수사업 내용을 문화재청에서 발행한 “문화재 수리보고서”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그 동안의 보수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사업이 퇴락가옥보수, 담장 및 지붕보수, 변형가옥 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주거의 유형

마을전체의 안채 68동 중 조적식가옥과 개량형가옥 9동¹¹⁾을 제외하고 목조가옥 59동을 대상으로 안채의 평면유형을 살펴보면 “ㄱ”자형 36동, “-”자형 22동, “ㄷ”자형 1동으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 참판택 (중요민속자료 195호, 1984)
건재고택 (영암택; 중요민속자료 233호, 1998)

9) 기둥과 4면에 벽체가 있는 것을 부속채로 정하며 그 외는 기타건물로 설정하였다.

10) 이성선가옥, 이준록가옥, 이한숙가옥

11) (표 6.) 안채의 구조변화 참조

표 3. 마을내 보수현황

	보수대상	내용
89	참판작은택:사랑채·문간채 보수 송화택:사랑채·문간채 보수 신창택:안채 보수 영암택:안채 보수	퇴락가옥 보수
90	강희춘:변형가옥 철거 후 추가복원 오병석:안채보수 윤수봉:문간채보수, 지붕, 벽체, 창호, 전기공사 참판택:사랑채(추가복원) 및 문간채 미장·창호공사(89잔여공사)	퇴락가옥 물레방아 보수, 반석정 및 16동 추가잇기
91	참판택:안채·문간채보수 이걸선:안채·문간채보수 신동주:안채·문간채보수, 담장설치 이은선:사랑채, 헛간채보수, 헛문채축, 담장설치 한 우:문간채 보수, 담장설치 안영석:문간채 보수, 담장설치 조봉환:안채·문간채 보수	퇴락가옥 보수 및 담장설치
92	이대선:안채(추가복원)·부속채 이문선:안채·부속채 보수 이봉새:안채·부속채(추가복원) 윤순철:안채·문간채(추가복원) 문간채보수·화장실 신설: 신동주, 조봉환, 안영석 가옥	퇴락가옥 보수
93	이남직:안채 (추가복원) 신수남:안채·문간채 (추가복원) 이현직:안채 보수 김기문:문간채 (추가복원)	퇴락가옥 보수, 추가잇기 32동
94	참판택 가묘 및 담장보수 김귀문:안채 (추가복원) 이준학:안채 (추가복원), 문간채 개축-송화택 이교선: 안채 (추가복원) 보수	퇴락가옥 및 가묘 보수 공동화장실 개축
95	강희춘, 윤태평, 백순례	사고이월
96	참판(큰)택:안채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김관식:문간채 이준용:문간채, 사당 이준원:안채, 문간채 이교선:부속채 안채	퇴락가옥 보수
97	참판택	명시이월

*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보고서”, 1989~1997년 정리

표 4. 안채의 평면유형

“ㄱ”자형		“-”자형		“ㄷ”자형	계
와가	초가	와가	초가	와가	
16	20	6	16	1	59

첫째, “ㄱ”자형 가옥은 전체 59동 중 36동 61%를 차지하여 이 마을의 대표적인 평면이라 할 수 있다. 초가의 경우 평면구조는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한편에는 건너방을 두고 그 앞으로 쪽마루나 누마루를 만들어 대청마루와 연결되게 하였다. 반대편에는 안방을 배치하였는데 안방에서 2~3칸 내어 부엌을 배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와가의 경우 70%인 16동이 여기에 속하며 “-”

자형 가옥 6동, “ㄷ” 자형 가옥 1동이 있다. 평면구조는 초가 형태와 비슷하다. 와가는 초가에 비해 칸수나 크기가 늘어났으며 특히 대청마루는 2~3칸으로 넓어지고 부엌과 방들이 확장되어 커진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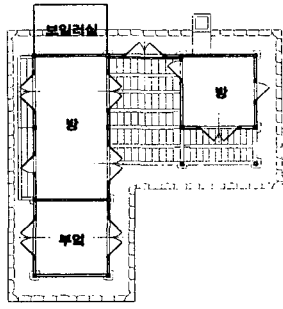


그림 3. 송화댁 가랍집

둘째, “一”자형 가옥은 22동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면구조는 전면에 퇴칸을 두고 측면 1칸에 부엌을, 나머지 2칸에는 온돌방을 배치하고 방 앞으로 툇마루를 두는 형태이다. 정면 3칸 이상인 경우는 부엌 또는 방을 한칸 더 설치하거나 중앙 1칸에 앞뒤로 퇴칸을 반칸 덧달아 측면 2칸인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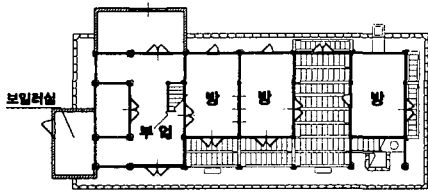


그림 4. 오병석가옥 평면도

셋째, “ㄷ”자형 가옥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창댁에서 볼 수 있는데 3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로 온돌방이 있으며 서측의 안방을 회침으로 하여 부엌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건넌방 전면(前面)으로도 부엌과 온돌방을 한 칸씩 더 배치하였다.

이상으로 외암마을의 주된 평면구조는 중앙에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측에 방을 배치한 형태로 동측에는 건넌방 앞으로 누마루나 쪽마루를 두고 서측에는 2~3칸의 안방 전면(前面)이나 측면에 부엌을 배치한 형태로 “ㄱ”자형과 “一”자형 가옥이 주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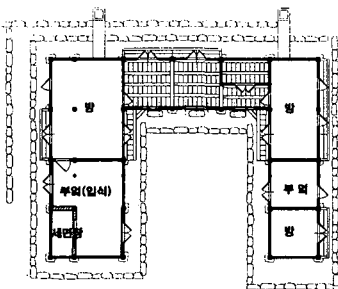


그림 5. 신창댁 평면도

3. 주거의 변화

3-1 안채

외암마을의 가옥분포는 와가 29동, 초가 31동, 슬래트 7동, 청석 1동으로 함석과 슬래트 가옥이 현저히 감소하고 초가는 증가했다는 것을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5. 안채의 지붕변화

년도	와가		초가	슬래트	청석	함석	계
	한와	양와					
1990년	21	10	8	23	1	2	65
2001년	23	6	31	7	1	0	68

이것은 보존마을 지정이후 지속적으로 슬래트나 함석으로 개량된 것을 다시 초가로 복원하거나 보수한 사업¹²⁾의 결과이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6. 안채의 구조변화

년도	목조가옥	개량형가옥	조적식가옥	계
1990년	51	7	7	65
2001년	60	5	4	68

가장 많은 구조형태는 목조구조로 60동이며 조적식 구조로 된 가옥이 4동, 개량형 가옥으로 전면(前面)에 목조 기둥을 세운 뒤 측면과 배면은 벽돌을 쌓고 서까래를 올린 후 한식 기와를 얹은 형태의 가옥이 5동이 있다.

위의 표에서 살펴보면 개량형 가옥과 조적식 가옥은 감소하고 있으며 목조가옥이 60동으로 전체가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목조가옥의 증가는 기존의 퇴락가옥이 복원되었기 때문이며, 보존지구 지정 이후 마을내 신축된 3가옥이 목조가옥이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장윤환, 김광겸 가옥은 현재 공가(空家)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특히 김광겸 가옥은 대지전체에 잡풀이 무성하고 안채의 부엌 쪽 벽체만 남아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어 있다.

12) 2001년 조사시점까지 43가옥이 복원 또는 보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중 초가가 26가옥으로 6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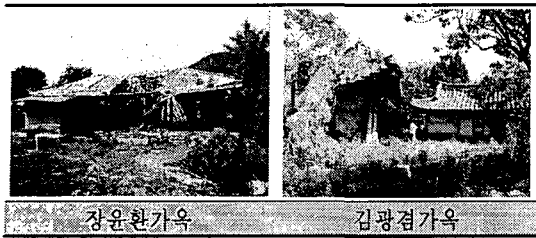


그림 6. 파손가옥

안채의 주요 평면구성과 변화빈도를 1990년 이전의 안채평면이 있는 44동¹³⁾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변화빈도는 평면변화, 입면변화, 증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안채의 주요 실구성¹⁴⁾은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로 나타나며 변화빈도는 평면변화, 입면변화, 증축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와가에서 보다는 초가에서 변화빈도가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내용 중 내부 또는 외부에 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가는 와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으로 필요한 실이 확보하기 위한 거주인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슬래트 가옥의 경우는 모두 조적조로 내부변화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필요공간이 적어서라기 보다는 가옥 구조가 90년 이전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외암마을은 가옥전체의 62%에 달하는 가옥을 보수하였고 보수가옥이 실생활과 맞지 않아 이로 인한 가옥변화도 많았다. 즉 원형으로의 보수사업이 끝나면 다시 주거인에 의해 필요한 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보수하는 구조로 특히 소규모의 초가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풍세가옥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옥을 보수한 후 부엌을 입식으로 바꾸었고 부엌과 안방 서측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청마루를 따라 전면에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가옥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기존 부엌의 나머지 1칸은 방을 만드는 등의 변화를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보수가옥에서 나타난

13) 총 45동 중 김광겸가옥은 현재 안채가 파손되어 제외하였다. (그림 3. 참조)

14) 방상훈씨택은 2개의 방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여기서는 주거성 공간을 찾기 위함으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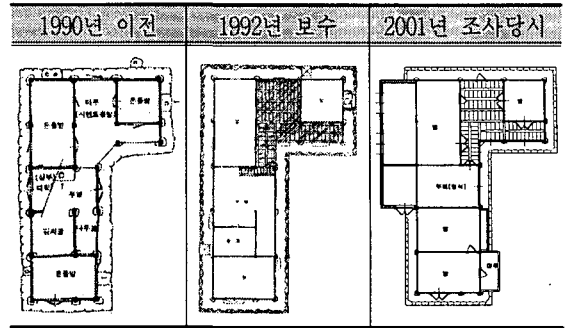


그림 7. 이풍세가옥의 평면변화

다. 즉, 관(官)에서의 보수가 끝나면 주거인이 인부를 사서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하고 방을 넓게 통합 및 확장하며 마루에 미닫이문을 설치하는 등의 보수공사를 한 후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유형 가운데 가옥을 보수하면서 평면구조가 자체가 변화된 경우가 있는데 대상가옥 중 이효숙가옥, 이문선가옥, 송화택, 김영구가옥이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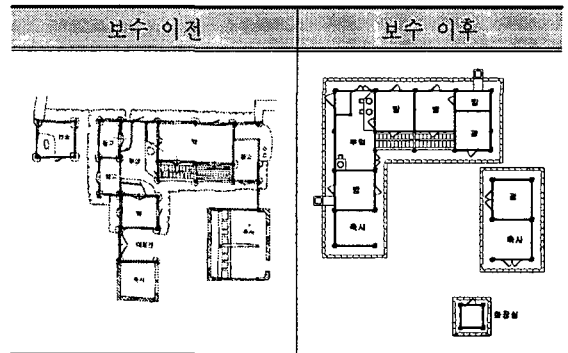


그림 8. 이효숙가옥의 평면변화

이효숙가옥의 경우는 보수이후 평면 위치가 변화된 형태로 실의 통합 및 재배치된 경우이다. 부엌 뒤쪽의 실들과 대문칸을 없애고 부엌내부에 보일러등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실을 만들고 확장실은 목조초가로 보수하여 부속채 아래로 배치하였다.

송화택의 경우는 안방과 부엌 좌측의 반칸을 없애고 보수하였다. 현재 이 택은 공가(空家)로 방문객을 위한 관람용 민가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주요 평면구성요소인 안방, 건넌방(안방이외의 방을 포함), 마루, 부엌으로 구분하여 안채의 변화요소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으며, 이러한 변화 유형을 평면구성별로 정리하면

표 7. 안채의 주요 구성요소와 변화빈도

번호	주택명	지붕 형태	평면 구성	평면변화			입면변화			증축	보수 가옥
				방	마루	부엌	벽체	창호	지붕		
1	이전선가옥	와 가	$R_1+K+R+F+R_2$ (B,U)	×	×	△	×	△	×	×	
2	김광태가옥		$K+R+F+R_1$ (B,U,M)	○	△	○	×	×	×	×	
3	신창택		$K+R+F+R_1+K_2+R_2+F_0$ (B)	△	×	△	×	△	×	○	○
4	이홍직가옥		$R_1+K+R+F+R_2$ (B,U,M)	×	×	△	×	△	×	○	
5	이효숙가옥2		$K+R/R_1+F+R_2+F_0$ (F _H)	×	△	△	×	×	×	×	○
6	감찰택		$R_1+K+R+F+R_2+K_2+F_0$ (B,U)	×	△	×	×	×	×	○	○
7	건재고택		$K+R/R_1+F+R_2+F_0$ (F _H)	△	×	×	×	×	×	×	○
8	김정동가옥		$R_1+F+K+R_2/R_3+F_0$ (B,U)	×	△	△	×	×	×	○	
9	이우선가옥		$K+R+F+R_1+K_2+F_0$ (B,M)	×	×	×	△	×	×	×	
10	백순례가옥		$K+R+F+R_1+F_0$ (U,F _H)	△	×	△	×	△	◎	○	○
11	장윤환가옥		$R_1+K+R_2+F_0$ (M)	×	×	×	×	×	×	×	
12	교수택		$K+R/R_1+F+R_2/R_3+K_2+R_4/R_5+F_0$	△	×	×	×	×	×	×	
13	조실택		$K+R/R_1+F+R_2+F_0$ (B,U)	△	△	×	△	△	×	○	○
14	참봉택		$K+R/R_1+F+R_2+F_0$ (U)	×	×	×	×	×	×	○	○
15	참판작은택		$K+R/R_1/R_2/R_3+F+R_4/R_5+F_0$ (F _H)	×	×	△	×	×	×	○	○
16	참판큰택		$K+R/R_1+F+R_2/R_3+K_2+R_4+F_0$	△	×	×	×	×	×	×	○
17	송화택		$K+R+F+R_1+F_0$ (F _H)	△	×	△	×	×	×	×	○
18	이준새가옥		$K+R+F+R_1/R_2+F_0$ (U,F _H)	×	×	×	×	△	×	×	○
19	양재원가옥		$K+R/R_1+F+R_2+F_0$ (M,F _H)	×	△	×	△	△	×	×	○
20	이효숙가옥		초 가	$R_1+K+R/R_2/R_3+F/F_0$ (U,M)	△	△	△	△	△	◎	○
21	건재고택가합집	$K+R+F+R_1+F_0$ (U,F _H)		△	△	△	×	×	×	○	○
22	김영태가옥	$K+R/R_1+F+R_2$ (M)		×	×	×	△	×	×	○	
23	이남직가옥	$R_1+K+R_2+K+R_3+R_4+F_0$		△	×	△	×	×	◎	×	○
24	김중학가옥	$K+R/R_1+F+R_2+F_0$ (B,U)		△	△	△	×	△	◎	○	○
25	이길선가옥	$R_1+K+R+F_0$ (B)		△	×	○	△	×	◎	○	○
25	윤순철가옥	$K+R+F+R_1$ (B,U,F _H)		△	×	△	△	×	◎	○	○
26	신동주가옥	$K+R+F+R_1+K_2$ (U,M)		△	△	△	△	△	◎	○	○
27	이문선가옥	$R_1+K+R/R_2/R_3+F_0$ (M)		△	×	△	×	×	◎	○	○
28	장영주가옥	$R_1/R_2+K+R+F+R_3$		△	△	△	△	△	×	○	
29	신수남가옥	$R_1+K+R+F/F_0$ (B,U,M)		△	△	×	△	△	◎	○	○
30	김영구가옥	$R_1+K+R+F$		△	△	△	△	△	◎	○	○
31	윤태성가옥	$K+R/R_1+F+R_2+F_0$		△	△	△	△	×	◎	×	○
32	이봉세가옥	$R_1/R_2+F_1+K+R+F+R_3+F_0$ (U,M)		△	△	○	△	△	◎	○	○
33	송화택가합집	$K+R+F+R_1+F_0$ (U)		△	×	×	×	×	◎	○	○
34	오병석가옥	$K+R+R_1+F+R_2+F_0$ (B,U,M,F _H)		△	△	△	×	×	×	○	○
35	이대선가옥	$K+R+F+R_1+F_0$ (B,U,U ₁ ,M)		△	△	△	△	△	◎	○	○
36	조봉환가옥	$R_1+K+R/R_2/R_3+F_0$ (U,M)		△	△	△	×	△	◎	○	○
37	이준하가옥	$K+R/R_1/R_2+F_0$ (U)		△	△	△	△	△	◎	○	○
38	이종관가옥	$K+R+F_0$	×	△	△	△	×	×	○		
39	이춘창가옥	청석 슬 래 트	$K+R/R_1/R_2+F+R_3+K_1+F_0$ (M,M ₁)	△	×	△	×	×	◎	×	○
40	최장근가옥		$R_1+K+R+F_0$	×	×	×	×	×	×	×	
41	김동환가옥		$K+R+F+R_1$ (B,U,M)	△	△	△	△	×	×	○	
42	이준규가옥		$R_1+K+R+F_0$ (U,M)	×	△	×	×	△	×	×	
43	방상훈가옥		$K+R+F_0$	△	×	×	×	×	×	×	

범례

R:방 K:부엌 F:마루 U:보일러실
Fo:쪽마루, 뒷마루, 누마루 B:세면실(욕실)
M:다용도실, 창고, 기타실 F_H:합실아궁이

○:용도변경
△:실 변화(신설, 통합, 확장)
×:변화없음

◎:지붕복원
가옥별
증축가옥

관에의한
보수가옥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안방과 건넌방의 변화유형은 ① 내부통합 및 확장, ② 내부분할, ③ 외부에 부속실 신설, ④ 용도변경의 4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의 내부통합 및 확장은 안채의 변화요소 중 가장 많이 나타나며 방과 방 또는 기타실과 통합하거나 외벽을 연장시켜 방을 확장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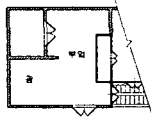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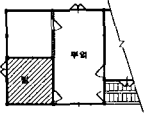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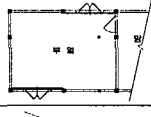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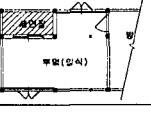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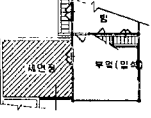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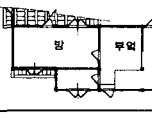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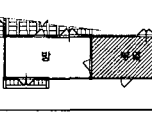
②의 경우는 내부분할을 한 가옥은 신축된 지 1년 이내의 가옥으로 거주인에 의해서가 아닌 복원 공사의 결과이다.

③은 측면이나 후면에 덧대어 새로운 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 용도는 보일러실이나 창고이다.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은 이전의 불필요한 실을 방으로 변경하거나 입식주방을 설치하여 사용한

표 8. 안채의 변화유형

구분	유형	각옥	변화 형태		내용	사례
			1990년	2001년		
안방	용도변경	김광태			· 방을 입시주방으로 변경	김광태
	내부 통합 및 확장	신동주			· 아랫방과 옷방 또는 그의 공간과 통합 · 외벽 설치하여 안방의 규모를 넓힘	신창택, 건재고택가람집, 건재고택, 이길선, 윤순철, 신동주, 이문선, 장영주, 박순례, 교수택, 김영구, 윤태성, 참판큰택, 김종학, 송화대가람집, 오병석,
	내부 분할	이남직			· 방을 둘로 나눔	이효숙, 윤태성, 이남직
	외부 신설	송화대가람집			· 안방의 측면이나 후면에 부속공간을 설치	김종학, 윤순철, 김종학, 박순례, 신수남, 조실택, 송화대가람집, 조봉환, 이대선, 이준하
건넌방	용도변경	이효숙			· 광을 방으로 용도변경	이효숙, 이풍세
	내부 통합	김동환			· 아래, 옷방 통합	신창택, 이준창, 장영주, 김동환
	외부 신설	이준하			· 부속공간 설치	이대선, 이준하, 신수남, 조봉환
마루	미단따라 이문설치	이준규			· 마루를 따라 목재 또는 사시로 유리미단이문을 설치	김정동, 김종학, 장영주, 박순례, 신수남, 조실택, 이대선, 이풍세, 양재원, 이준규, 이효숙(사분합)
		가옥 앞 김동환			· 가옥 앞 기단위치에 미단이문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확장	김동환, 신동주,
	용도변경	감찰택			· 마루방을 세면실, 화장실을 설치하여 변경	감찰택
	복원 보수	조봉환			· 마루 신설복원 · 마루 보수	이효숙, 이준하, 건재고택가람집, 이준창, 김영구, 윤태성, 오병석, 양재원, 조봉환

구분	가옥	변화 형태		내용	사례
		1990년	2001년		
부 역	용도 변경			· 광을 방으로 변경 · 부역을 창고로 변경	김광태, 이길선, 이문선, 이 봉세, 이종관, 조봉환
	내 공 신			· 내부에 세면실, 보일러실 설치 · 기존공간을 분할	이전선, 이효숙, 신창택, 양 재원, 김종학, 이준창, 김동 환, 이길선, 신동주, 이문선, 장영주, 참판작은택, 이효숙2
	외 공 신			· 세탁실 등의 부속공간을 신설하여 확장하고 부역 용도 분할	이흥직, 건재고택가랍집, 김 정동, 김동환, 신동주, 윤순 철, 장영주, 박순례, 이봉세, 김영구, 오병석, 양재원, 이 대선, 조봉환
	복 보			· 외부 반칸을 없애고 보수	이남직, 윤태성, 송화택, 이 대선, 이준하

*건넌방에는 안방을 제외한 방들을 포함한다.

경우이다.

둘째, 마루에서의 변화는 ① 미닫이문 설치, ② 용도변경, ③ 신설복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닫이문 설치의 경우 대청마루와 누마루, 쪽마루를 이어서 가옥 전면(前面)에 미닫이문을 설치한 경우와 마루 앞의 기단면에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넓힌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감찰대의 경우는 뒷마루에 화장실과 세면실을 설치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마지막의 유형은 복원공사를 한 후의 변화로 이효숙씨택은 재료가 변하였고 이준하씨택은 함실아궁이를 없애고 마루를 설치하였다.

셋째, 부역은 안채의 평면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①기존의 용도를 변경, ②필요공간을 내부에 분할, ③외부에 공간을 확장하여 분할, ④보수하면서 변형된 형태로 나누어진다.

①의 유형은 부역 내부에 딸린 부속공간을 방이나 창고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②③ 두 유형은 세면장(욕실), 수장공간, 난방시설 등을 내부 혹은 외부에 설치한 경우이다. ④의 유형은 외부의 반칸이나 덧댄 부분을 없애고 보수공사를 한 경우이다.

부역이 입식 또는 반입식으로 변화되면서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고 일부에서는 거실 개념의 주공간으로 바뀌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보다 확장된 공

간이 필요하거나 보일러실과 같은 새로운 부속공간이 요구되었다. 즉 다용도의 단일공간에서 다실형태로 분할하였다.

이상과 같이 표 8의 변화유형을 정리해보면 안채의 주요 변화요소의 구성은 부역(35%) > 안방(30%) > 마루(24%) > 기타의 방을 포함한 건넌방(11%) 순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문간채

문간채는 대문간 좌우에 연결된 방과 부역에서 행랑생활이 이루어진다. 큰 규모의 집에서는 문간을 둔 행랑채가 별도로 지어졌으나 작은 규모 집에선 사랑채나 아랫채 한쪽에 대문 한칸을 내었다. 문간채의 좌우에는 울담이 쌓아짐으로써 행랑마당(또는 바깥마당)과 사랑마당을 구분시켜준다. 문간채는 3칸 정도의 작은 규모의 집과 7~8칸으로 중앙부에 솟을대문을 두고 측면은 대개 단칸으로 찬 형태의 두가지 예가 있다.

구조는 대부분 3량의 납도리 홀치마이며 대문간의 좌우 온돌방 한두 칸, 헛간 또는 광, 부역 또는 화장실이 붙어있다. 외측벽은 대개 토벽을 하여 방화벽으로 마감되기도 하고 상부에 봉창 등의 광창을 내었다. 양외와 슬래트로 된 지붕재료는 현재 한와 또는 초가로 모두 보수하였다.

마을내 문간채는 전체 68가옥 중 28동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기와가 11동, 초가 16

표 10. 문간채 구성요소의 변화

구분	유형	가옥명	1990년	2001년	내용	사례
방	용도 변경	이남직 가옥			· 광을 방으로 변경	이남직 박순례
	통합 및 확장	신창대			· 2개의 방을 통합 · 벽을 헐고 확장	신창대, 김종학 윤순철, 교수대 송화대
세면실 (욕실)	외부 신설	이남직 가옥			· 측면에 덧달아내어 설치	이남직
창고, 보일러실	용도 변경	교수대			· 내부공간을 보일러실로 용도를 변경	교수대
	외부 신설	이흥직 가옥			· 측면 또는 후면에 설치 (주된 용도는 보일러실)	이흥직, 김종학, 이준원, 윤순철, 박순례

동, 청석 1동이다.

표 9. 문간채의 지붕변화

년도	와가		초가	슬래트	청석	계
	한와	양와				
1990년	9	2	3	7	1	22
2001년	11	0	16	0	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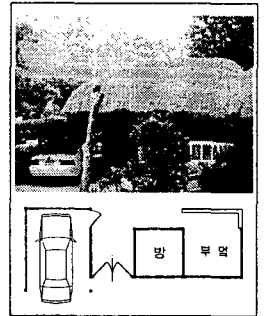
1990년에는 초가가 3동이었으나 현재는 16동으로 증가하여 마을전체의 57%로 가장 많은 형태가 되었다. 이것은 5동이 새로 신축되었으며, 슬래트 지붕 7동과 와가 1동을 초가로 복원하였기 때문이다.

문간채는 안채의 지붕 구조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판대 작은대의 경우는 안채는 와가이나 문간채는 초가로 되어 있으나 지붕재료만이 초가일 뿐 구조나 평면 등은 와가에 가까워 순수 초가 구조를 갖고 있는 집은 15동이라 할 수 있다.

1990년 이전 도면에 근거하여 분석대상 문간채 16동15)의 주요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 변화는 방의 변화와 부속실 설치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광을 방으로 또는 2개의 방을 통합하거나 대문간의 누다락을 헐어 확장하는 등으로 방구조를 변경하였고 측면이나 후면에 블록으로 덧달아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용도는 부족한 수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창고나 보일러실이다.



이외에 마을 입구의 이 그림 9. 이성선가옥 성선가옥의 경우는 대문의 서측에 기등을 세우고 지붕에는 짚을 엮어 차고를 만들었으며, 참판대 작은대의 경우는 1989~90년 보수공사 이후 그림 10과 같이 평면형태가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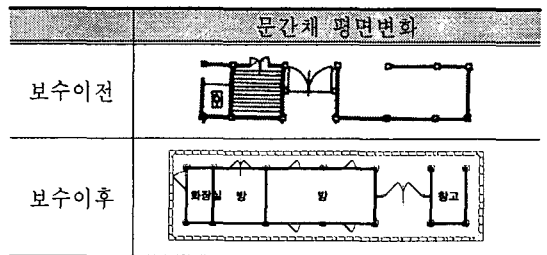


그림 10. 참판작은대 문간채의 변화

15) 이진선가옥, 이흥직가옥, 신창대, 윤수봉가옥, 견재고택(영암대), 이남직가옥, 김종학가옥, 이준원가옥, 윤순철가옥, 박순례가옥, 김광경가옥, 교수대, 참봉대, 참판대 작은대과 큰대, 송화대

3-3 사랑채

사랑채는 대부분 문간이나 외부에 접한 곳에 면하여 배치되어, “一”자형이나 “ㄱ”자형으로 안채와 더불어 튼 “口”자형을 구성하여 안마당을 감싼 배치를 하고 있다.

사랑채 옆으로는 중문이 달려 부녀자들은 이곳을 통해 안마당에 유도되나 사랑주인은 사랑방 뒷 퇴칸에 설치된 방문이나 사랑채 및 처마밑에 따로 내어진 반달같은 월문, 협문 등을 이용, 안채에 드나들며 사랑채에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대청과 뒷마루로 구성되었다.

마을 전체에 사랑채는 12동이 있다. 다음의 표 11을 살펴보면 전체 1동이 늘어났는데, 강희춘가옥은 목조초가로 신축되었고 이관직가옥의 경우는 보수과정에서 부속채로 바뀌어 제외하였다. 교수댁 사랑채의 경우는 임시로 지은 영화세트이다.

표 11. 사랑채의 지붕변화

	와가		초가	슬레이트	계
	한와	양와			
지정당시	5	1	1	4	11
조사당시	4(1)	0	5	2	11(1)

* (1)영화세트

또한 조적조 1동과 목조 2동¹⁶⁾은 사랑채라기보다는 아래채에 가까워 사랑채라 할 수 있는 가옥은 8동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건재고택(영암댁), 참판댁 큰댁, 송화댁은 신축 당시부터 반가의 형태로 지었으나 이효숙가옥²는 근래에 이축(移築)한 것이다. 나머지 가옥의 사랑채는 목조초가나 슬레이트 구조이다. 그 중 참판 작은댁은 초가이지만 처음에 지었던 사랑채의 구조와 형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외암마을 반가의 사랑채는 대개 대청마루를 작게 만들고 마루 좌우에 크고 작은 사랑방을 설치해 두었다. 그리고 전면에 퇴칸마루를 두었는데 전체를 마루도 하지 않고 한칸은 방으로 막아 두었다. 평면은 주로 ‘一’자형에 방, 마루,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90년 이전 도면이 있는 분석대상가옥 5동¹⁷⁾을 변화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판 작은댁의 사랑채는 정면 5칸의 ‘ㄱ’자 평면으로 회침부분에 대청마루를 두고 서편으로 나란히 4칸의 방을 두었고 대청마루 북편에 중문간을 그 건너편에 또 하나의 방을 배치하였다. 현재 참판 작은댁은 다른 건물은 비어있으며 사랑채에만 거주하고 있다. 변화된 부분은 부엌 양옆에 위치한 온돌방의 후면에 덧단 반칸규모의 공간을 1989년 보수공사 시 덧댄 것으로 밝혀져 철거되었다. 그리고 보수 이후 재래식 부엌은 반입식 형태로 바뀌었으며 중문의 오른쪽 방은 안쪽 미닫이문을 없애고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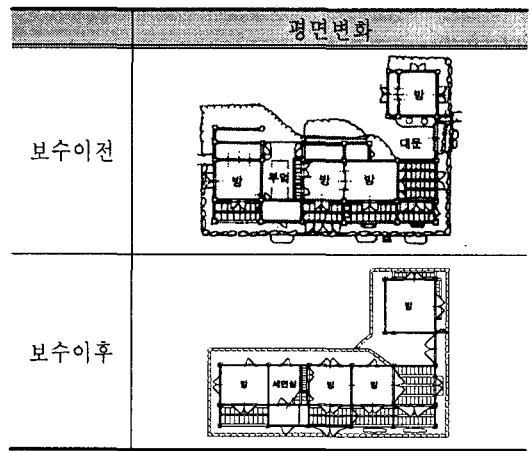


그림 11. 참판댁 작은댁 사랑채의 평면변화

이은선가옥의 경우 온돌방에 면하여 대청마루에 사분합문을 설치하였으며 이효숙가옥²에서 뒷마루를 신설한 것 외에는 변화사항이 없었다. 나머지 건재고택(영암댁)과 참판 큰댁은 변화가 없었다.

사랑채는 대부분 면적이 넓고 실이 많은 상류주택 또는 반가(班家)에 위치하고 있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공간을 주생활건물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인의 감소로 다른 건물에 비해 사용률이 적기 때문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3-4 부속채¹⁸⁾

부속채는 그 형태나 구조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주요 실 구성은 창고(광), 화장실, 창고+화장실, 창고+방이며 이외에 화장실+창고+방의 형태가 있다.

16) 조적가옥 : 이종관가옥(한와)
 목조가옥 : 이동현가옥(슬레이트), 이길선가옥(초가)
 17) 이효숙가옥², 건재고택(영암댁), 이은선가옥, 참판 작은댁, 참판 큰댁

18)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속채는 기둥과 4면에 벽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그 외는 기타건물로 설정하여 고찰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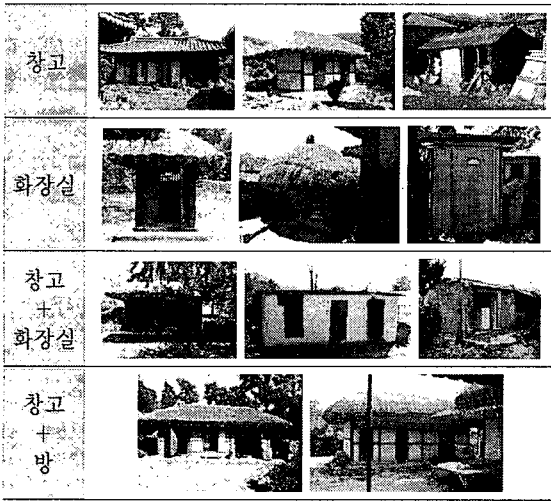


그림 12. 부속채의 다양한 형태

부속채는 기존의 고가(古家)나 보수를 통해 목조구조에 기와·초가를 얹은 형태와 생활에 부족한 공간을 필요에 의하여 가설물을 세운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은 정면 1~4칸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생활하면서 지금은 사용치 않는 축사나 창고 1칸을 화장실 등의 용도로 변경한 형태가 많았다.

후자의 유형은 수장공간, 농기계보관 등 생활방식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공간이 요구되어질 때마다 부속건물을 가설하여 사용이 불편하고 마을전체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의 보수된 가옥은 지정당시의 65가옥 중 66%¹⁹⁾로 부속채의 변화는 거주인에 의한 것보다 관(官)에 의한 보수사업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있다. 즉, 필요에 의해 가설물 형태로 세운 후자의 유형을 정리하여 가설물의 규모에 맞게



그림 13. 농기구창고의 형태

19) 지정당시 65가옥 중 2001년 조사시점까지 복원·보수된 가옥은 66%인 43가옥이다

전자의 형태로 보수하였다.

이외에 변화된 농업환경으로 농기계 및 농기구를 수용하기 위해 신동주씨댁과 신수남씨댁의 경우는 문간채 옆으로 대형 농기계창고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도 있다.

4. 변화유형 및 요인 분석

이상으로 외암마을의 현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대상가옥에 대한 변화요소를 안채, 문간채, 사랑채, 부속채 별로 고찰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그 변화유형과 그에 따른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변화유형

앞서 살펴본 건물별 변화유형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용도변경 : 기존의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이다. 방을 입식주방으로, 창고를 방으로 변경하는 등 주로 안채, 문간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② 내부에 부속실 신설 : 실생활의 변화에 따라 필요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내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주된 용도는 보일러실, 세면장(욕실), 다용도실, 창고이다.

③ 실의 분할 : 내부공간을 둘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로 대부분 복원 또는 보수된 지 오래되지 않은 가옥에서 나타나며 주민의 의사보다는 원형으로 보수해야 하는 문화재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④ 실의 통합 및 확장 : 생활하면서 불필요하거나 협소한 실들을 통합한 경우와 외벽을 헐고 ब्ल럭 등의 재료로 실을 확장한 경우이다.

⑤ 외부에 부속실 신설 : 주된 용도가 보일러실, 세면실과 같은 현대적 부속의 용도와 관련된 실로 외벽에 붙여 덧달아 내어 부족한 실을 설치하였다.

⑥ 미닫이문 설치 : 프라이버시 확보나 단열측면에서 마루전면을 따라 설치하거나 가옥의 앞부분에 기단을 따라 ब्ल럭벽이나 각재를 대고 미닫이문을 설치하였다. 보존지구 지정 이전에도 많이 나타나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⑦ 복원 또는 신설 : 이것은 평면이나 재료상의

변화로 보수공사 후 덧달아내거나 외부 반칸을 없애고 보수하거나 마루 등을 신설·복원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변화 유형 중 실을 통합하거나 확장, 특히 블럭등으로 공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4-2 변화요인 분석

이상과 같이 변화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생활방식의 변화에 의해 과거와는 다른 현대적 생활공간이 필요해졌다. 즉, 위생공간, 설비공간, 가사공간, 수납공간 등 변화된 공간의 필요로 신설되거나 분할, 재배치되는 변화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요한 평면변화가 실을 확장하거나 새로이 신설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실의 크기나 수, 수장공간의 부족이 원인이다. 주 용도는 보일러실, 세면실(욕실), 다용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실을 충족시키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세째,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부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입식주방의 설치로 난방방식이나 부엌 생활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 집의 구조변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네째, 마루부분에 미닫이문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다른 재료로 씌우는 것은 프라이버시 확보와 단열·방음의 문제이다. 이것은 전통가옥들의 보편적 문제로서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는 외암마을의 관광지화로 주민들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복원·보수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주민의 변화된 생활방식을 고려하기 보다 법적규제와 문화재보존이라는 틀속에서 원형복원 형태로 복원·보수공사가 이루어져 공사이후 변형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만 최근의 보수공사에서는 방의 규모를 넓히거나 부엌 내부에 보일러를 놓을 수 있도록 별도의 실을 만들어 주는 등의 융통성을 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는 마을보존에 관해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보존지구 지정으로 주택보수 등의 혜택을 받지만 동시에 법적규제를 받는 가운데, 보존보다는 현대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보수 의지가 우선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전통마을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는 인식부족에서 기

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아산 외암마을이 1988년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마을의 실측조사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주거 공간의 변화현황 및 주요특성을 고찰하고, 변화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원·보수 사업이 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기보다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원형복원 위주로 진행되어 관(官)의 보수공사가 끝나면 다시 주민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수하는 2중 구조로 되어있다.

둘째, 내부 변화가 외가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생활 공간이 적은 초가에서 많이 발생하며 건물별로는 주 생활공간인 안채에서 변화요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안채의 주 구성요소의 변화는 부엌(35%)>안방(30%)>마루(24%)>기타의 방을 포함한 건넌방(11%) 순으로 파악되었다.

세째, 내부 구성요소 중 부엌과 안방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용도변경, 내부에 부속실 신설, 실의통합 및 확장, 실 분할, 외부에 신설하여 용도를 분산하는 형태가 있다.

넷째, 주된 변화의 원인은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이것은 입식부엌 설치, 보일러실·세면실(욕실)등 필요, 안방 등 내부공간의 확장, 미닫이문설치, 주 생활동선의 변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옥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수시 이러한 요소가 고려되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마을을 단순히 문화재로 보는 접근방법은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는 전통마을을 파괴하거나 문화재 자체도 훼손의 위험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이후의 전통민속마을의 보수사업 시 문화재 보존의 측면과 함께 앞서 살펴본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전통가옥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으며 그러한 공간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즉 복원 또는 보수 시 주민의 의견과 실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마

을 보존의 가치와 필요성을 자각하고 주민 스스로 궁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利用行態 및 變容實態 調查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3.7.

참고문헌

1. 강동진, “한국 전통마을 보존방법론에 관한 연구” -현행 보존과정의 특성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23-3, 1994.
2. 김봉렬, “전통마을의 가치와 보존방향”, 「꾸밈」, 90.4.
3. 김성균, “전통적 마을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환경현장 연구방법적 접근”, 「국토도시계획학회지」 27-2, 1992.5
4. 김왕직, “민속마을의 건축사적 가치와 보전의 문제”, 「플러스」 110호, 1996.6
5. 나한범, “전통마을의 장소성과 그 공간구성 체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석사. 1987.
6.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보고서”, 1988~1997.
7. 박명덕, “보존이란 문제를 통해 본 민속마을의 상황들”, 「플러스」 110호 1996.6.
8. 아산군, “아산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1990.
9. 아산군, “외암리민속마을(도록)”, 1983.
10. 윤홍로, “문화재로서의 민속마을보존”, 「꾸밈」, 1990.4.
11. 이왕기, “전통문화의 보고, 민속마을의 보전”. 「플러스」 110호 1996.6.
12. 이왕기, “전통마을의 현재적 의미” 「꾸밈」 1990.4.
13. 이응목, “송악외암마을”, 「꾸밈」, 1990.4.
14. 이인섭, “외암리 마을 상류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산업대 석사. 1993.
15. 임만택·고태주, “낙안읍성민속마을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논문집」, 1994.10
16. 장순용, “안동하회마을”, 「꾸밈」 1990.4.
17. 조성기, “한국 중부지방 민가의 평4량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11
18. 최경숙, “보전한옥의 개수방향”, 「플러스」 51호 1991.7
19. 탁수성 외2, “文化財指定 傳統家屋의 住居空間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Oe-am* Folk Village

-From 1988 to 2001 (after Designated as a Traditional Preservation
Area)-

Lee, Wang-Kee (Professor, Mokwon University)

Choi, Hong-Kee (Mokwon University)

Lee, Kang-Bok (Mokwon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is the analysis on *Oe-am* village which is designated as a folk-preservation village in 1988 and is included in the fact of the dwelling change through Spot-Survey and Case-Investigation in the last decade from now(2001). The result shows the main change on the stand-up dining room installation, the place with the boiler and bathroom installation, the additional expans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small twice or third space, the using change, the prototype restoration.

The reason of this change is shown the following.

1. There is the dual structure that the villager repairs that because the repairing operation is biased the prototype restoration since the government construction.
2. The internal change is come from more at thatched house than at tiled house and the order of the main element's change is Kitchen (35%), main room (30%), living room (24%) and other rest room (11%).
3. The change of the dining room in the internal composition material is the strongest and the change is included in the using change, the installation of the new sub-division in the spot and the expansion of the outside if necessary.

The reason of the main change is life-style's. Therefore we can know the change of the dwelling structure and we are able to make a modern-life. Also, If the restoration or repair is necessary, the change element on that must be considered.